

# 김종철 “JTBC 재무건전성 볼 것… 통합미디어법도 속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재승인 심사서 재무 검토  
“방송사업 운영, 직접적 영향 없어”  
구글·애플 인앱결제 조치도 속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OTT 등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JTBC의 재무 건전성과 기술적 운영 능력 등을 들여다 본다.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JTBC 경영 위기와 관련해 “방송 영역의 주무 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1차적으로 재정 정상화와 유동성 위기 문제이고, 이것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중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어 주목해서 살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JTBC를 비롯해 콘텐츠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중앙홀딩스 핵심 계열사 5곳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에 집중한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5월에는 허위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 밖에 흡수

핑 업계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신분야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 “흡수·합

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라 미디어 규제 재편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과 OTT를 함께 규율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기존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광고·편성 규제와 글로벌 OTT의 규제 차이를 조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재원 구조도 함께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OTT를 단순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방식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국내외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의식주가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면 지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미디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디어를 필수 공공재이자 사회 인프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미디어 기반사회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은 관

점을 제시했다.

미디어 바우처에 대해서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콘텐츠와 플랫폼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연구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OTT 바우처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고도 했다.

방송 3법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방미통위는 현재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 정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에도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운영 여부를 새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공식적인 조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2인 체제 의결 논란으로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조민선 기자 msjio@metroseoul.co.kr

##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체계 일원화

과기부, 보상신청관리시스템 구축  
건물 11만 개소, 설비 14.4만 개 대상  
지방 정부와 밀착형 홍보도 확대

앞으로 인터넷 설비 등에 쓰인 공용 전기료에 대한 보상 신청을 온라인이나 전용 콜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설비의 공용 전기료 보상 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을 맡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 안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도 참여했다.

그동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

용 전기료를 해당 통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 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방송, 서경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4곳도 함께 참여했다. 전수 조사 및 보상 대상 건물은 11만 개소, 설비는 총 14만4000개다.

이날부터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곳에서 하

면 된다.

공동주택 건물주, 층주,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동단지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리 주체와 건물 정보, 사업자별 설비 사진 등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의 보상·계약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 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협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도 확대한다. 전국단위 전수조사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사·보상 진행 상황도 TF를 통해 매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한전 비상통신망에 스타링크 도입

한전-SK텔링크-스타링크 ‘맞손’

SK텔링크는 한국전력공사-스타링크코리아와 저궤도 위성통신 적용을 위한 3자 협력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한국형 공공 위성통신 모델 구축을 목표로 전국 15개 한전 본부에서 가동하는 비상통신망에 저궤도 위성통신을 적용한다.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인 통신 체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SK텔링크는 고정 IP, 인터넷전화, 보안 연계, 단말 공급 등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링크코리아는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한전은 글로벌 표준을 국내 공공 인프라 여건에 맞게 최적화하고 통합 서비스 모델을 구현한다.

협력은 3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나주 본사 등 2개 지역 본부에 스타링크와 인터

넷 전화를 결합한다. 2년 약정형 사업으로 SK텔링크는 단말 제공과 통신 서비스를 책임진다.

한전 ICT 운영처와 재난용 비상통신망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경북본부와 강원본부를 대상으로 스타링크 차량용(5대), 이동형(3대)을 구축해 운영성을 검증한다. 대형 산발 발생 지역 등 산악지역과 오지에 통신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환경에서 실제 활용성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와 재난 대응 인력의 통신 운용 시나리오를 검증한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과 장비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전국 15개 본부로 비상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재난 대응 통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 LG헬로비전, 알뜰폰에 쇼핑 할인 더했다

현대홈쇼핑 연계 요금제 출시

LG헬로비전은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이 현대홈쇼핑 유심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현대홈쇼핑과 제휴를 통해 생활 밀착형 혜택을 확대했다. 통신비 등 소비 생활에서 실속을 추구하는 알뜰폰 소비자 특성에 주목해 선보인다.

가입 고객은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H몰에서 적립금 5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전 상품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TV방송 상품을 구매하면 3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할인 혜택도 받아 볼 수 있다. 혜택 기간은 가입 후 2개월이다.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이 현대홈쇼핑 제휴 요금제를 출시했다. /LG헬로비전

요금제 구성은 기본 제공 데이터량에 따라 월 9000원대 가성비 라인부터 4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데이터를 전부 소진하면 최대 5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헬로모바일 제휴 카드를 이용하면 월 최대 2만원 추가 할인해준다.

/조민선 기자

## AI가 외국인 고객 응대… KT, 다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중국어·태국어 등 20여개 언어 지원

KT가 외국인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국어 인공지능(AI) 상담사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KT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절차, 멤버십 혜택 등 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20여개 언어를 지원한다. 유무선 통신 상품과 이용 조건을 외국인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KT는 다국어 AI 상담사의 상담 품질과 응답 정확도, 혜택 안내 기능도 고도화



외국인 고객이 KT 파워콜 안심역점에서 다국어 AI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있다. /KT

할 예정이며 향후 앱 기반의 사후 관리 기능도 연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객들은 요금제와 이용 현황, 멤버십 혜택 등 매장

밖에서도 자국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도 세밀하게 분석·파악해 외국인 특화 상품 기획, 혜택 정교화 등에 반영한다. 이를 사내 원격 교육 수단으로도 활용해 현장 상담사를 대상으로 신규 상품과 서비스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KT는 앞서 대화형 AI 스타트업 씨플랫에이이아와 AI 우수 적용 사례를 공동 발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부터 안산, 해화, 수원 등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 특화 매장에서 다국어 AI 상담사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 상담 지원 효과와 매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민선 기자